

### 여수 호텔사업 공모기간 연장 응모자 없어 내달 7일까지

여수시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호텔 사업자를 공모했으나 17일로 돼 있던 공모 기한까지 응모사업자가 없어 다음달 7일까지로 공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17일 “지난달 27일부터 호텔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마감시한까지 응모자가 없어 기업을 충분히 준비기간을 갖고 공모할 수 있도록 공모기간을 다음달 7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호텔롯데와 한화리조트 등 대기업들이 호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 관계자들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웅천지구 부지(1만3천975㎡)와 신월지구 부지(8천344㎡)에 호텔을 지을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특히 웅천지구 부지에 호텔을 짓는 사업자에게는 장성지구 택지(5만4천395㎡)를 분양해 아파트 건립 특혜를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350점), 사업추진능력(450점), 관리·운영계획(200점) 등 총 1천점 만점으로 평가해 다음달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최원익기자 cki@



### 광주 '여성인력개발협' 출범

지역의 여성인력 개발과 취약계층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여성인력개발협의회'가 17일 오전 광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사진)를 하고 공식 출범했다.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광주와 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인력개발센터, 광주상공회의소, 여성경제인협회, 기업 등 민·산·관 관계자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여성 근로자의 상시 근로체제 유지 방안과 여성 친화 기업환경 조성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광주시는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취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성인력개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 금호타이어 20일까지 조업중단

금호타이어는 17일 광주와 곡성, 평택 등 국내 전 사업장에서 이날 오후 근무조부터 오는 20일 오전 근무조까지 사출간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생산계획을 효율화하고 생산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 3일간 조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무등산 개발 조례 제정 유보

## 김동철 민주당 위원장 “시민 의견 수렴 후 보강하자” 중재

### 광주시의회 6월 임시회서 논의키로

관광자원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무등산 조례)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표결이 유보됐다. 시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오는 6월로 처리를 미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7일 김동철 위원장(국회의원·광산갑) 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23일로 예정된 광주시의회의 무등산 조례 찬반 투표를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당은 대신 시민의견을 더 수렴해 내용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찬성 측 송재선(서구1)·이철원(북구5) 의원과 반대 측 유재신(광산2)·진선기(북구1) 의원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박관철 의장과 이정남 의원의 자리를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시의회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이번 무등산 조례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데다 일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의견 수렴과 내용 보강을 거쳐 다음 회기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중재안을 찬성과 반대 측 의원들이 수용키로 함에 따라 광주시의회 내부에서 특별한 반대가 없는 한 '무등산 조례' 표결은 다음 회기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임시회는 오는 6월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무등산 조례'는 광주시의회 송재선·이철원 의원 등의 발의로 지난달 제1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김 의장은 이에 따라 더욱 심도있는 논의 위해 조례안 표결을 보류한 상태를...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시 설

### 정부, 명분없는 F1 '발목잡기' 중단하라

그동안 경제성 등을 이유로 포틀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F1대회)에 반대하는 정부의 논리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코리아 F1 국제대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F1대회의 엄청난 파급효과를 제시하며 '포틀러 원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F1지원법) 제정을 촉구 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F1대회 개최의 타당성을 입증한 만큼 F1대회에 제동을 걸었던 정부는 더 이상 할말이 없게 됐다.

이날 포럼에서 한나라당 소속의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장은 “F1 대회는 경제적 수익에 그치지 않고 국가홍보, 관광산업 발전, 국가 브랜드 제고 등 사회문화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국가행사”라며 “상임위 차원의 관심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종근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장은 “특위 차원에서 F1지원법 제정을 이룬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예산확보, 인프라 구축 등 행·재정적 지원체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F1 전문가인 일본 레이스 출신인 기노시타 노부유키와 안톤 솔트 조진대 교수 역시 “F1대회는 국가 브랜드 제고 효과가 큰 만큼 2010년 F1 코리아 그랑프리 성공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F1 '발목잡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인정한 F1대회 가치를 정부가 폄하해 반대하는 것은 안일 일이다. 지금이라도 F1대회준비에 협조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는 것만이 '딴지 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 나는 길이다.

### 심각한 지방 재정난 대책 시급하다

경제위기와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가뜰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위기에 빠질 것인 우려가 크다. 지방 교부금이 내국세의 감액에 따라 2조2천억원이 줄게 됐다. 여기에다 지방세수 결손이 6조3천억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자단체 부담액 1조9천억원까지 더하면 10조9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 물론 추경예산 가운데 3조원이 지방경제 활성화에 쓰일 예정이지만 나머지 7조9천억원의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광주와 전남도의 재정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전남도의 경우 올해 정부의 세입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가 무려 3천13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같은 감액규모는 전국 최상위권이다. 광주도 388억원이 줄게 된다. 여기에다 정부가 노후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경우 대폭 감세로 한 것도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다.

이 같은 지방재정난으로 지방교부금 사업인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 시설 사업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지사업은 대폭 축소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특히 추경예산 가운데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핵심인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지방비 부담이 커져 추진될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전략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정부가 교부금 감소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고 가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보조율을 높이든지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도 시급하다. 지방재정난·지방채 발행 급증·이자부담 증가·지방재정난 심화의 악순환을 끊을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한·일 V리그 탐매치' 선수단 환영 만찬



17일 오후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흥국금융가족배 한·일V리그 탐매치 선수단 환영 만찬'에서 유재철 광주일보 사장이 환영 인사를 하고 있다. 만찬에는 박주선·조영택 국회의원, 김관제 광주교법위원장,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최중만 광주시 행정부시장, 변중준 흥국화재 대표와 대한배구협회 관계자, 선수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관런기자 14면> /워킹기자 jwji@kwangju.co.kr

# “5+2 경제권으로 호남차별 해소 안된다”

### 정두언 의원 광주 특강...F1지원법 국회 통과 기대

친 이명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사대문구을)이 “호남 차별을 없애려면 차별받아 온 쪽에 더 투자하는 ‘역차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7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전남도당에서 가진 '전남도당 핵심당원 교육' 특강에서 “5+2 광역경제권” 역시 인구 수와 경제력을 따지면 영남이 2개 경제권, 호남이 1개 경제권이 되는 게 맞지만, 그래서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역차별에 따른 차별 해소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한 게 없다. 이명박

도 지역감정을 이용해서 (의원직을) 한 번 먹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지역감정을 이용해 총재도를 먹었고, 한나라당도 사실 '경상도당'이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정책이 아닌 지역을 갖고 싸우다 보니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각 정당,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지역감정과 이에 쉽게 좌우되는 표심을 꼬집었다.

한편 전남도당은 이날 박재순 최고위원과 남경필·정두언·이춘식·정영석 의원을 비롯해 도당 주요 당직자, 읍·면·동 책임자급 이상 핵심당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전남도당 핵심당원 교육'을 가졌다.

그는 “정 전 장관이 저 '난리'를 피우는 것

### 공공기관 임직원 3만5천명 감축

#### 정부 2012년까지

오는 2012년까지 305개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3만5천명 정도가 감축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종사자 25만9천명의 13.5% 수준으로, 여기에는 순수 감원 2만3천명과 인명화에 따른 인력 이동 1만2천명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면서 5차 계획에 1만9천명, 6차 계획에 3천명 가량의 감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글로벌 위기 뒤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잡세어리프가 별개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공공기관 감원방안은 이달 중 각 기관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적게는 10%, 많게는 15%까지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기관들은 유사 업무의 통합, 조직 슬림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지 않고 신입 직원의 초임을 삭감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1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장들로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인원을 감축하더라도 단기간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까지 단계적인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대량실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각 공공기관 노조들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 빛의만평

- 김중두

참 많이도 참여했다

### '목포 국제축구센터' 7월 출범

#### 잔디·인조구장 등 갖춰 6월 완공 시, 발기인총회·직원 채용 '순항'

'호남 축구의 요람'이 될 목포 국제축구센터(FC)가 오는 7월 공식 출범한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대양동 21만여㎡ 부지에 착공한 목포 국제축구센터는 천연잔디구장(2면), 인조구장(3면), 유소년 전용구장, 하프 풀장, 다목적 경기장 등이 오는 6월 완공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특히 오는 7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직원 채용 등의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목포 FC 출범을 앞두고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정종득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목포 축구센터 설립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를 열었다. 총회에서는 재단법인의 사업계획, 정관, 직원 임용 계획 등 앞으로 목포 축구센터 운영의 핵심사항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이에 앞서 시는 FC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전문기관 용역, 관계자 회의, 유사시설 사례 조사를 거쳐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정종득 시장은 “재단법인 설립 허가, 등기 등 각종 행정절차와 직원채용을 다음 달까지 끝내고 7월에 본격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진기자 ssllee@

### 북구의원 후보 없어 승계 안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김재균 국회의원(광주 북을)의 부인 주모(56)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형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북구의원 비례대표 김모(68·여) 전 의원이 지난 8일 사직하면서 생긴 공석이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로 승계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光 卍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 회장 許宰誥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 편집국장 曹慶完          |   |
|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                                   |                   |   |
|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www.kwangju.co.kr |   |
|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 대영지원국 2200-511    |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
| 편집 부 2200-672                              | 문화생활부 2200-661                    | 광고마케팅부 2200-521   |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
| 정치 부 2200-634                              | 여론제작부 2200-679                    | 경제 부 2200-641     | 체육팀 2200-663                                      |
| 사회 1 부 2200-612                            | 사 진 부 2200-691                    | 사회 1 부 2200-4267  | 조 사 부 2200-571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